

# 고창군, 암치 폐석산 관광단지 개발

암반 절벽·넓은 개방형 지형 독특  
4개 기업 2033년까지 1000억 투자  
관광·숙박, 휴양·레저시설 등 조성

고창군 성송면의 '폐석산'이 관광단지로 재탄생한다. 고창군은 성송면 암치석산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4개 기업과 함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진된다. 그동안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약 5만~30만㎡의 비교적 작은 면적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됐다. 여기에 관광단지 지정 권한이 광역에서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시설 기준 또한 기존 3종 이상에서 2종 시설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역 규모와 탄력성을 고려한 관광단지 조성시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고창 성송면 사업은 새 제도를 활용해 '폐석산'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국내 첫 번째 시도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재활용이나 공원 조성이 아니라, 산업 유휴지를 감성·체험·교육·문화가 결합된 '관광 목적지(Destination)'로 전환하는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성송면 폐석산은 채석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웅장한 암반 절벽과 넓은 개방형 지형을 갖추고 있어, 독특한 공간적 매력을 지닌다. 고창군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절벽 전망 공간과 포토존 ▲독특하고 이색적인 숙박시설 ▲가족 단위 자연·모험 콘텐츠 ▲야간 미디어아트 광장 ▲로컬 특산물·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성송면 폐석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4개 기업과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환하는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성송면 폐석산은 채석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웅장한 암반 절벽과 넓은 개방형 지형을 갖추고 있어, 독특한 공간적 매력을 지닌다.

고창군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절벽 전망 공간과 포토존 ▲독특하고 이색적인 숙박시설 ▲가족 단위 자연·모험 콘텐츠 ▲야간 미디어아트 광장 ▲로컬 특산물·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

에서 역할을 나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4개사가 1000억원 들여 2033년까지 관광숙박, 휴양·문화시설, 레저시설 조성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고창군 체류형 관광 추진과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협약한 4개 기업과 더욱 긴밀히 상호협력하고 소통해 암치석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갯벌 홍보사업’ 국가유산청 우수사례 선정

철새 탐조대회·갯벌 세계유산학교  
해양쓰레기 줍기 대회 등 호평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평가'에서 고창갯벌 홍보사업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고창군의 고창갯벌 홍보지원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인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B.B.R.)'는 4회를 맞아 국내 대표 철새 탐조대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국내·외 35개 팀 126명이 참여해 153종의 철새를 관찰하고 고창군 미기록종 5종을 새롭게 확인했다.

참가자들이 기록한 1793건의 탐조 데이터는 세계유산 모니터링 자료로도 활용된다.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생태 놀이, 탐조 체험, 전문가 강의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갯벌 생태감수성을 높였다.

올해 처음 열린 '고창갯벌 해양쓰레기 줍기 대회(B.G.R.)'는 참가자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하는 실천형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홍보·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새 탐조대회인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참가자 행렬.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고창갯벌 홍보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갯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을 확대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아파트 입주 맞춰 시내버스 개편

농소동 707가구 입주...12일부터 277번·277-1번 기·종점지 변경

정읍시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맞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읍시는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 707가구 입주 시기를 고려해 시내 순환버스 기·종점지를 조정하고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규 입주민은 물론 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12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노선은 시내 순환버스 277번과 277-1번이다. 시는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를 기점과 종점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신규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노선과 시간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각 버스 승강장엔 안내문과 새로운 시간표를 부착했다.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또 마을 이·통장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리는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후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운행 초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이를 즉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운행 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라며 "전체 시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들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도자전시관’ 건립 본격화

내년도 국비 5억 확보...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남원시가 추진 중인 남원도자전시관(가칭)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남원도자전시관 건립 사업은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2025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앞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전시관 기본·실시설계비 5억 원도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적 검증과 국비 지원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평가다.

남원은 조선시대 왕실 백자 생산지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1999년 개설된 시민도예대학과 14회째 이어지고 있는 남원국제도예캠프를 통해 교육·창작·교류가 결합된 독자적 도자문화 기반을 다져왔다.

전북도는 이번 사전평가에서 ▲남원 도자의 역사적 위상과 지역성 ▲시민 참여와 작가 교류를 통

해 형성된 창작 기반 ▲국내외 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남원도자전시관은 이런 강점을 집약해 전시·교육·체험·창작·아카이브 기능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현대 도자 전문 공립미술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 절차와 추가 재원 확보를 병행해 나가며 2027~2028년 착공과 건립·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평가 통과는 남원도자문화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도자전시관이 합파우 예술특화지구와 함께 남원의 문화도시 전략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을사년 마무리

정읍시립국악단, 12일 연말작품발표회 '정읍풍류' 공연

정읍시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국악의 깊은 울림과 신명 나는 가락으로 마무리하는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국악단 연말작품발표회 '정읍풍류'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작품발표회는 시립국악단이 지난 1년 동안 쌓아 올린 예술적 성과와 단원들의 탄탄한 기량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전통 국악이 가진 고유의 멋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의 서막은 힘찬 북장단과 역동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진 '오고무'가 열리고 이어 연주부 단원들의 뛰어난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기악 합주 '민요

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창극부와 연주부가 호흡을 맞춘 단막 창극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가는 길'은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국 전통 춤의 미학이 돋보이는 '산조춤'과 용이 승천하는 기세를 웅장한 모듬북 가락으로 표현한 '용오름'은 무대의 열기를 절정으로 이끌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정읍의 지역적 정체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극 '정읍아리랑'이 장식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예술단의 저력과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